

# “천사같은 아이” 하교 중 참변 초등생 빈소 눈물바다

후진하던 수거차량에 치여 숨져 유가족 통곡... 재발방지책 촉구 주민들 사고현장 추모공간 마련

“그 천사같은 예쁜 아이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오늘 조카와 미용실을 가기로 예약했는데...”

광주 북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수거차량 사고로 조카를 잃은 김민정씨는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연신 닦아내다 끝내 말을 잊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49)씨가 몰던 5톤 폐기물 수거차량이 후진 중 하교하던 김모(7)양을 치었고, 사고로 크게 다친 김양은 현장에서 숨졌다.

A양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어머니와 ‘수업이 끝나 귀가하고 있다’며 전화 통화를 했다. 하지만 도착해야 할 아이가 집

에 들어오지 않자 걱정되는 마음에 밖에 나가본 어머니는 재활용 수거차량 밑에 놓여진 김양의 신발과 가방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A양의 어머니는 얼굴이라도 확인하고자 현장에 다가가려 했지만, 현상이 너무 참혹해 구급대원들이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오전 찾은 광주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양의 빈소에는 유가족과 조문객들의 애끓는 통곡만이 울려 퍼졌다. 슬픔에 빠진 유족들은 한참을 흐느끼다가도 이따금 고개를 들어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김양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민정씨는 “언니(김양의 모친)가 조카를 임신했을 때부터 태어나 처음 만나던 날까지 생생하게 기억한다. 조카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속한번 안 씩인 착한 아이였다”며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명랑하고 애교가

많은 조카가 너무 보고 싶다”며 오열했다.

김양의 조부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손녀뺨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탄식만 내뿜었다.

김양의 조부인 김모(78)씨는 “첫 손자가 태어나고 7살 터울로 손녀(김양)가 태어났다. 아들이 늦은 나이에 본 딸이라 온 가족이 애지중지하며 공주처럼 키워왔다”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고 애교도 많은 명랑한 아이였다”고 회상했다.

유가족들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양의 삼촌 김성훈씨는 “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데도 그간 차량들이 인도 위에서 작업을 해왔다”며 “누구에게든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며 분개했다.

이어 “시설업체라고 하더라도 대형 수거차량을 동승자와 안전관리자 없이 혼자서 몰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이 단순 사고로 넘어간다면 계속해서 2차, 3차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다. 철저하게 조사해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며 울분을 뱉어냈다.

같은 날 오전 8시께 찾은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앞에는 김양을 추모하기 위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날밤 사고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 앞에는 국화와 김양 또래의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간식류와 인형 등이 가득 쌓여 있었다. 각자 출근을 하거나 등교하는 길에 추모공간을 지나던 주민들은 김양을 위해 준비한 간식류 등을 꺼내 바닥에 둔 뒤, 한참동안 눈을 감고 김양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다. 간식류 등에는 김양을 추모하는 내용의 메모가 붙었다.

특히 김양 또래의 자녀를 배양하기 위

해 등교길에 동행한 학부모들은 추모공간을 지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곳 일대의 인도가 평소 사고의 위험이 높아보였다고 비판하며,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김양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입주민 B씨는 “분리수거장과 차도의 거리가 멀어 수거차량이 인도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 매년 불안했는데 결국 이 사달이 났다”며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김양이 너무 안타깝다. 김양이 좋은 곳에 가서 아프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김양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한편 31일 북구는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30여곳의 시설 폐기물 수거업체를 방문해 경고등과 후방영상장치 부착 안내와 함께 안전수칙 교육에 나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 나주 이어 광주서 용의자 호송 중 도주...경각심 제고 질타

광주 광산구에서 도박 혐의로 불잡혀 경찰서로 호송되던 불법체류 외국인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용의자 호송 중 도주에 대해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호송 중 도주 사건이 발생하면서 치안 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5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A씨가 광산경찰서 앞에서 도주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50분께 베트남 국적 외국인 10여명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A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 지구대 조사를 받고 관할 경찰서인 광산서로 인계되던 도중 도주했다.

도주 당시 야간 시간이었었던 이유로 경찰서 정문에는 경비가 배치되지 않았으며 A씨는 뒷수갑을 차고 있었음에도 지구대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오후 6시 기준 여전히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인 A씨는 광산구 소재한 빌라 CCTV에 찍힌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적을 감춘 상태다.

CCTV 영상 속에는 A씨가 도주 당시

뒷수갑을 하던 것과는 달리 앞수갑으로 바꾼 채 도주하는 모습이 담겨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된 10명의 외국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다른 피의자 등을 상대로 예상 도주 경로 등을 조사하며 검거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나주에서는 지난달 16일 폭행 혐의로 호송되던 불법체류 외국인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10시간 만에 체포됐다.

광주에서도 지난해 6월 도박 혐의로 불잡힌 베트남 국적 피의자 23명 가운데 10명이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호송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달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자료 유출, 용의자 호송 중 도주, 승진 청탁 등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나주경찰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호송 중 경찰을 밀치고 도주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10시간 만에 잡혔지만, 농진 시간동안 다른 사건·사고가 발생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경고했다.

정성이 기자



올바른 손씻기 체험

광주 서구청 주민들이 31일 서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올바른 손씻기 체험 행사’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체험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 5·18기념재단, ‘북한군 개입 주장’ 권영해 전 안기부장 고발

### 5·18 허위사실 유포 혐의

5·18민주화운동당시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고 주장·유포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5·18단체와 광주시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허경 스키아데일리 기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영해 전 부장은 그동안 “북한이 5·18

에 파견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400여명의 묘역을 조성해 추모하고 있음을 과거 안기부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해온 혐의다. 이를 두고 보수성향 군소 정당들이 5·18을 폄하하는 기반 자료로 쓰이고 있다.

허경 기자는 지난 6월부터 ‘5·18 기획 기사’를 쓸 때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수사받고 있던 권 전 부장의 발언을 보도한 혐의다.

앞서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진상조사 완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폄하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왜곡하고 기자는 거짓 기사를 보도하고, 일부 단체는 이것을 인용해 마치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가공하고 있다”면서 “일부 선동가들이 거짓된 주장을 펼치고 마음껏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 ‘돈 받고 승진 청탁’ 전 치안감,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 1심 징역 1년6개월·벌금 2000만원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 A(59)씨와 제3자 뇌물교부죄로 징역 8개월을 받은 전직 경감 B(56)씨, 징역 6개월을 받은 브

커 성모(63)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 전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었던 지난 2022년 브로커 성씨에게 B경감의 승진과 관련해 2차례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전 경감은 2021년 말 성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1000만원을 건넨 혐

의를 받는다. 성씨는 B 경감으로부터 받은 돈을 A 치안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 A씨는 “성씨에게 승진 청탁과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사건 증거가 성씨의 진술뿐으로 증거인멸 우려도 없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를 인용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B 경감 측도 “성씨에게 금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전달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경찰직 해임에 실형 선고로 처벌을 충분히 받고 있다”며 감형과 보석 인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 19일 재판을 속행, 성씨와 B 경감이 승진 청탁을 했을 당시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민현기 기자